

社會淨化는 指導層부터!! 한時代의 責任廻避 못한다.

趙 香 祿 牧 師

인간이 無始無終한 역사의 흐름을 시간으로 토막을 낸 것은 그 마디마디에 삶의 의미를 붙이려는 까닭이다. 그러면 해방 36년을 맞은 오늘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80년대로 접어들어 제5공화국이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기치를 들고 사회정화운동을 안보적 차원에서 끈질기게 벌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번만은 과거의 때를 완전히 청산하고 전혀 새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인 동시에 기어이 이 때를 역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보자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한국 근세사의 비극은 그때마다 꼭 청산하고 넘어가야 했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왔던 데에 있었다. 갑신정변도 썩어넘어지는 골격없는 왕실을 업고 일을 일으켰고, 갑오경장이란 것도 외세가 사주하는대로 춤췄으니 승패는 고사하고 역사의 뼈대가 바로 실 까닭이 없었다. 8·15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은 한국 민족 역사상 과거를 말끔히 청산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를 놓치고 말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의 유일무이한 독립국가의 주체며 광복군은 독립운동의 혈맥을 이은 당당한 민족보전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외면을 당하여 민족정기가 흐려지게 되었다. 5·16은 또한번 구악을 혁파하고 새로운 기풍을 일으킬 기회였는데, 그만 영속적 정신혁명의 험로를 버리고 고루한 관료·구정치인, 그리고 탐욕적 재벌들과 짝하여 마침내 대형적인 부정부패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이번만은 일제의 잔영은 물론 積年의 부정부패·부조리 등 악풍을 말끔히 가

시게 하고 새 사회 새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利點을 꼭 만들어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민족 정기를 흐리게 하고 구시대의 탁류에 붙든 세력들은 역사의 주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회정화란 새 사회기풍을 일으키는 일인데 낡고 썩은 자들이 말로만 새 시대 새 역사 창조를 외친다고 새 바람이 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끈질긴 폐풍의 원인은 일제시대의 有志가 자유당 때 유지요, 그것이 또 공화당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 그대로가 때를 따라 탈바꿈하는데 기인한다.

나라와 정권이 위급하면 나라도 상전도 버리고 쭉구멍을 찾아 숨었다가 새주인이 나오면 거기에 후조처럼 물려드는 자들이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 정화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정화를 외치면 어찌 사회기풍이 쇄신되며 그 외침에 국민들이 신뢰를 걸고 호응할 수 있을까? 역사는 사람이 만들지, 때를 따라 변신하는 허수아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화운동의 실질적 주체는 국민이요 정화의 실질적 대상은 사회 각계각층의 소수 지도층 인사들이며 그것을 주장해야 할 우리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사회정화는 기풍 조성의 문제 뿐이다. 관준민비에 젖은 관료풍토, 권력과 금액에 결탁해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풍토, 돈과 계집으로 뒤틀거래를 해야 이름나는 정치풍토, 가문·지연·동기동창을 등에 업고다니는 출세풍토, 새치기를 해야 한발 앞서는 시정풍토 등을 그대로 두고 어찌 사회에 새 기풍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새 역

사의 물꼬를 바로잡아줄 지도세력이 과연 새 시대 새 역사의 상징적 화신이 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행정관료가 애국적 주체세력이어야 하고 지식인들이 역사발전의 선도세력이요, 정치세력이 국민단합의 중심점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과연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한국은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이면 국민들이 기꺼이 그 뒤를 따르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지도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에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 속에 상호 불신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그것은 한 두 해에 굳어진 국민의 마음상태가 아니라 실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지도층의 무책임·食言·배신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방 후 36년 간의 경험으로만 보아도 한국의 지도층은 책임있는 발언과 행위, 그리고 그 발언과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스스로 진일도, 진 자도 거의 볼 수 없었으니 말이다. 배양 지도자란 자들의 장담만 믿고 따르자들만이 어리석은 민중이 되었고 손해를 보는 자가 되었던 역현상이 상식화되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정치적」이란 묘한 낱말로 얼버무렸고, 관료들은 자리바꿈으로 우물쭈물 넘겨버렸으며, 지식인들은 말장난으로 이리저리 빠져버렸던 것이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라해도 이제는 그 속임수만큼은 미리 짐작하게 되었고 더욱 순박한 국민일수록 한 두 번 속으면 그 다음은 진실로 불신하는 응고집이 생기게 되는 법이다. 과거에도 귀가 따갑도록 속정이니 혁신이니 부정부패의 척결이니 하여 천하를 떠들석하게 한 경우가 한 두 번만도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그 불호령조차도 용두사미가 되었다. 또한 큰 고기는 우물쭈물 빼놓고 송사리들만 희생의 제물이 되게 했던 것이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정화운동은 실로 목은 발을 다시 일구는 노력으로 온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 이 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겠고, 위에서 내리 조이는 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 호응하고 일어나는 애국운동으로 심화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정화를 안보적 차원에서 비장한 결심으로 진행하여 가는데, 그것이 그것만으로는

새 역사 창조에 창조적 활력을 위촉시킬 위험을 동반하게도 된다. 말하자면 관료의 부패를 단속하고 부정관리들을 숙정해두면 그들은 또 무사안일로서 가장 무능하고 교활한 자들만 자리에 남게되는 역현상을 빚게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관료들은 애국적 주체세력으로 역사발전의 능동적인 창조적 주역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새 나라를 창조하는 시조에 과거의 관료들을 그대로 이끌고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좋으나 싫으나 내 나라다**. 각계의 지도층은 **좋든 싫든 한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 침략 36년과 맞먹는 해방 36년을 넘기는 이 시점을 새 역사 새 시대 창조의 기폭점으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 굳은 의지로 다짐해야겠다.

오늘날은 역사의 혁명성이란 물리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 능가가 문제된다. 더군다나 행정구조는 물론 모든 사회가 조직화되어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와 지도세력이 애국적 정열을 가지고 바로 서면 그 조직과 기구는 물론 그 조직기구에 예속된 전원이 바르고 활기있게 움직일 수가 있다. 현대 조직사회의 모든 책임은 그 조직의 책임자에 절대적으로 지워져 있다.

요즈음 「아랫물도 맑아야 윗물도 맑다」라는 역설이 있다. 그것은 다만 국민의 감시기능에의 분화를 타하는 말로서는 타당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물줄기가 거슬러 맑아지는 법칙은 없다.

이 나라는 **좋으나 싫으나 내 나라다**. 각계의 지도층은 **좋든 싫든 한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 침략 36년과 맞먹는 해방 36년을 넘기는 이 시점을 새 역사·새 시대 창조의 기폭점으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굳은 의지로 다짐하여야 하겠다.

 現 목사 / 제네바神大대학원추 /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 한국신학대학장 역임 / 저서·기독교 복음은 땅 끝까지 외 다수